

4/5/26

설교 제목: 그리스도 부활의 의미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고린도전서 15 장 1-26 절

그리스도의 부활

(고전 15: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고전 15:2)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고전 15:3)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전 15:4)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전 15:5)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고전 15:6)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고전 15:7)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고전 15:8)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전 15:9)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고전 15:10)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전 15:11)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죽은 사람의 부활

(고전 15:12)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전 15:13)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고전 15:14)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고전 15:15)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고전 15:16)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고전 15:17)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전 15:18)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고전 15:19)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고전 15: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전 15:21)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고전 15: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전 15:23)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고전 15:24)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고전 15:25)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고전 15:26)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Happy Easter!

우리 기독교는 사대 절기(부활절, 오순절, 추수 감사절, 성탄절)를 지키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를 확증하심으로써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최고의 절기로 지킵니다.

이 날이 되면 성도들은 함께 모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부활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부활절이라고 제단을 예쁘게 장식하고 평소보다 풍성한 만찬 거리를 준비해 들뜬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하나 여쭙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2 천여년 전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실에 왜 그렇게 관심을 가지십니까?

왜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십니까?

아니 보다 솔직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부활을 진정 기뻐하십니까?

그냥 매년 하는 교회 연중 행사니까 습관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누가 하라고 하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 왔으니까 아무 생각없이 따라 하기 보다는 그 일의 근본적인 의미를 알고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나와 어떤 연관을 가지는가에 대해 확실히 알고 그 기쁨에 참여하였으면 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그것이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 설명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 차 전도 여행 중 세운 교회로 교인들 다수가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약 1 년 6 개월간 머물며 교회를 개척한 후 교회를 아볼로에게 맡기고 에베소로 가 복음을 전하고 배를 타고 예루살렘 교회에 들렀다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함으로 2 차 선교 여행을 마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다시 3 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갈라디아를 방문해 1 차 전도 여행 중 세운 갈라디아 교회를 굳건히 한 뒤, 에베소로 가서 2 년간 머물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당파 문제, 음행 문제, 소송 문제, 결혼 문제, 우상 제물 문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주의 만찬에 관한 문제,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 부활에 관한 문제, 헌금 문제 등으로 교회에 내분이 생겼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각 문제들에 대해 성경적인 교리와 함께 실천적인 사항들을 적어 보냈습니다.

본문은 그 중 부활 문제를 다룬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방인 교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죽은 자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추종하는 헬라 철학 사상 가운데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절대로 살아나지 못한다는 '부활 불가론' 사상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믿으라고,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간곡히 호소합니다.

(고전 15: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고전 15:2)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시고, 죽으신지 삼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모두가 죄 사함을 입고 구원받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교린도 교인들은 이 복된 소식을 사도 바울로부터 전해 듣고 그것을 토대로 신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이단 사상을 가르쳐 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주장이 틀렸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죽으신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일이라고 합니다.

(고전 15:3)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전 15:4)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미는 그것이 즉흥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이미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증인들을 열거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증명합니다.

(고전 15:5)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고전 15:6)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고전 15:7)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고전 15:8)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로 베드로를 위시해 열두 제자들, 500 여 문도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열두 제자 외에 제자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 중엔 여인네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그녀와 함께 무덤을 찾았던 여인네들(요안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당시 여자들의 증언은 법적 효과를 가지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제일 먼저 '게바(베드로)'를 언급합니다.

이는 그가 여자인 막달라 마리아를 제외하고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자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이유는 그가 당시 초대 교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주의 일꾼으로 신임을 받고 있었기에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하면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확률이 클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 살아 생전에는 자신의 친형인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도란 명칭을 좀 더 광의로 사용한 것으로 바나바 디모데 실루아노 등을 포함하여 말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신에게도 보이셨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날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 도상을 가는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 오셔서 당신이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의 이 만남 이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삽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같이 악한 자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변화되었고, 또 은혜로 사도가 되었음을 간증합니다.

(고전 15:9)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고전 15:10)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전 15:11)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고는 자신이 그 사실을 전했을 때 너희들도 다 믿어 놓고 이제와서 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고 책망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겠냐고 반문합니다.

(고전 15:12)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전 15:13)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인간의 부활과의 상관성에 대해 말합니다.

100%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나신 만큼 다른 인간들도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거꾸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수 없으셨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일어날 불행한 결과들을 열거합니다.

(고전 15:17)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고전 15:18)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고전 15:19)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 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합니다.

(고전 15: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전 15:21)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고전 15: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순서를 말합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은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고전 15:23)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런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 모든 악한 권세를 멸하느라 잡았던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것이라고 합니다.

(고전 15:24)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고전 15:25)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고전 15:26)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발 아래 둔다는 것은 완전한 정복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모든 원수를 완전히 멸하는 권세 곧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행사하고 계십니다.

재림 시 모든 악한 권세를 멸하신 후,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면 서슴없이 '부활'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부활이 없고 이 세상 삶이 다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느라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법 도덕 윤리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을 마음껏 즐기다 죽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은 반드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마지막 날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 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고 지옥 유향 불 속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굳게 믿고 지키어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시간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가 임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